

세일이엔에스는 지난 1월 9일 청계산에서 2016년 수주·안전 기원제를 열고 신년목표 및 무재해 달성을 다짐했다



수주목표 달성 · 무재해 기원

세일이엔에스(주)대표 심기석)는 지난 1월 9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수주·안전기원제’를 열고 신년목표 및 무재해 달성을 다짐했다. 심기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목표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무재해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밝혔다.

세일이엔에스는 해마다 신년 초에 무재해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그 해의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또한 무재해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사업 분야별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 지표화를 통해 시스템 안전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